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 유혈사태 격화

내각교체 선언에도 시위대 수만명 경찰과 충돌 사망자 100명 넘어서...국제사회 정치개혁 촉구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열풍이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진 가운데 무바라크 대통령의 내각 교체 선언에도 불구, 29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의 유혈 충돌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는 등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무바라크 대통령이 측근을 부통령과 총리로 기용하는 한편 경찰과 군대를 내세워 사태 진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청년을 비롯한 이집트 시위대가 이날에도 시위를 벌여 경찰의 무력에 맞서 부딪혔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요구 시위가 발생한 이래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 서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100명 넘어”...부유층 출구 행렬 = 29일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시위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안 및 병원 소식통들이 전했다. 또 알 아라비아 TV는 29일 최근 사흘간 전역에서 시위로 73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궁 인근의 헬리오폴리스 지역을 포함한 카이로 곳곳에서는 흉기로 무장한 약탈자들이 슈퍼마켓과 소광물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도 목격됐다.

시위대는 군대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을 향해서는 강경 진압에 분노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시위대는 28일에만 카이로 내 경찰서 17개소를 불태우고 총기와 탄약을 탈취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부유층과 기업인을 태운 19대의 민간 항공기가 29일 카이로를 떠났다고 카이로공항

관계자가 전했다. <최측근 부통령 임명-시위대 반발> = 무바라크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최측근인 오마르 술레이만 정보국장을 부통령에, 아흐메드 사피르 전 항공부 장관을 총리로 임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사시 권력이양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성난 시위대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택연금 상태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9일 알 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권좌에 남으려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이 사람을 바꾼 것뿐인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무바라크에 정치개혁 촉구 = 서방을 중심으로 한 각국 지도자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비무장 시민을 향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폭력사태가 번지는 것을 반대한다며 시위대와 정부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치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부가 이집트 정국의 '열쇠' = 향후 이



집트 군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28일부터 거리에 배치됐으나 시민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부패한 관료집단'쯤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군은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존경받는 엘리트 계층이다. 이번 시위에서 정부의 명령으로 카이로 도심에 군 탱크가 진출하자 시위대가 오히려 박수와 함께 환영했을 정도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망은 두텁다.

군 역시 전통적으로 정쟁에 끼여들지 않으면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정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군이 이번 사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연말뉴스>

■ 세계 이목 집중된 국내 첫 해적범죄 수사 의미

“자국민 공격 엄정 단죄” 국제사회 과시

정부가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상 처음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훈방 조치를 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해적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경우 원거리 이동과 재판과정에서의 격리수용, 통역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케냐와 예멘, 오만 등과 이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한다 이들을 국가가 수용시설의 한계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런 경우 서방 해군은 시간과 비용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물과 음식, 충분한 연료를 제공하면서 '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사법처리를 선택했다.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이 있기도 하지만 훈방은 처벌의 의미가 약해 소말리아 해적이 이미 여러차례 피랍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격당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통신 등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려다 해적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모습을 국제사



생포된 해적 5명이 30일 오전 부산으로 압송됐다. 이날 항공편으로 도착한 해적이 수사본부가 마련된 부산 동구 범일동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말뉴스>



'이텐만 여명 작전'으로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인 석해군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보려고 30일 수원 이주대병원에 도착한 부인 최진희씨와 차남 현수씨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석 선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말뉴스>

회에 분명히 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때문에 외교가 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제적으로 해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외교가 처리에 관한 중요한 기준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뉴스>

미국·유럽 등 세계 곳곳서 연대시위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29일 세계 곳곳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대시위가 벌어졌다.

연대 시위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를 비롯해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 등 유럽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날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시애틀 등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일제히 이집트 국민을 지지하는 시위와 집회가 있었다.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는 참석자들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또 런던 주재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이집트인에게 자유를” 깃발을 흔들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아랍어와 불어, 영어로 각각 “무바라크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도심에서 벌어진 연대시위에 500명이상이 모였고, 몬트리올이 이집트 영사관 앞에서 15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연말뉴스>

정부, 이집트 전역 '여행자제' 지역 지정

“국내 항공편 탑승 중단”

정부는 29일 최근 반정부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치안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집트 전역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외교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집트는 기존에 시나이반도 지역이 여행경보 2단계로, 다른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각각 지정돼 있었다.

외교부는 “이집트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외교교통상부는 30일 이집트로 가는 국내 항공편에 대한 탑승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29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승객들을 태우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대한항공 측에 가는 하던 카이로행 탑승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노인성 치매환자 7년만에 4.5배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7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무려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노인성 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2009년 102만7000명으로 20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매 환자는 4만7747명에서 21만 5459명으로 4.5배, 파킨슨병 환자는 3만 2235명에서 7만6226명으로 2.4배, 뇌혈관질환

환자는 43만8927명에서 79만2243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치매질환 진료비가 560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무려 11.1배 증가하는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총진료비가 5813억원에서 2조4387억원으로 4.2배나 늘었다.

특히 이들 노인성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년 만에 255.4% 늘어나고 총진료비는 543.7% 증가했다. 결국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체 의료비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장, 롯데칠성음료,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코카콜라, 해대제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농산물 품질관리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 국비지원 과정

윤종하 교수, 이영복 교수팀 직강

주중반 **주말반**

개강 2월 7일 **개강 2월 12일**

★ 시험과목: 원예작물학, 수확 후 관리론, 관련법령, 농산물유통론

★ 다년간 경험과 학습 시스템에 의한 80%이상의 최고 합격률

★ 선배 합격자와 협회 및 학원을 연계한 취업알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먹거리 문제 최고의 유망자격!! 초기 자격을 잡아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신실 ————— **상담문의**

제일고시학원 062) 228-3939
무등고시학원 2층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 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